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우리어머니 Cu.	7월 14일(일) 11:40	식당
사도들의 모후 Cu.	7월 14일(일) 12:00	강당
울뜨레야	7월 21일(일) 11:40	강당

● 어린이 신입복사 입단식

- 일시 : 7월 14일(일), 교중미사 중(10시 30분)
- 대상 : 4명
- * 새로 시작하는 어린이 복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오 5,14)
- 일시 : 7월 20일(토)~21일(일), 1박 2일
- 장소 : 강화도
- 대상 : 6세~12세 어린이
- 문의 : 최웅석 교감(010-5473-9476)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Hav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 일시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 장소 : 느티나무 학교(충북 단양군)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참가비 : 85,000원(접수 후 환불 불가)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문의 : 이소율 마리스텔라(010-9216-5658)

● 복사단 여름캠프

- 일시 : 8월 04일(일)~06일(화), 2박 3일
- 장소 : 강릉 옥계성당
- 문의 : 박미옥 도미니카(010-5736-1132)
- * 복사단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여름캠프

- 일시 : 8월 31일(토) ~ 9월 01일(일), 1박 2일
- 장소 : 안산시 대부도
- 참가신청기간 : 7월 14일(일)~ 8월 18일(일)
- 비용 : 1인 3만원
- 입금계좌 : 신한 131-007-226079(한국천주교살레시오)
- 문의 : 최소현 로사(연합회회장 010-5735-5140)
-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마르코1,17)

● 다음 주일(7/2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7, 8월 없음	청소	1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월 03일 ~ 0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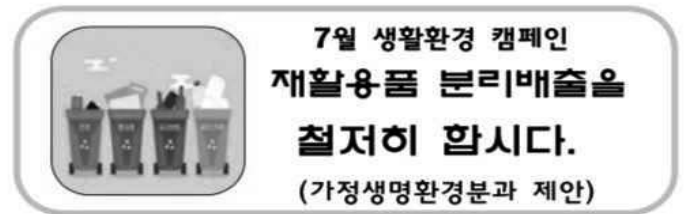
교무금	10,815,000원
주일헌금	5,199,500원
구상호10만원 백승숙10만원 이영숙 1만원 장원재20만원 김정분10만원 오성환10만원	
감사헌금	김하린10만원 신종구 5만원 구순희10만원 서호진20만원 김희영24만원 양OO 5만원 익명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7/14	구민서	조흥환 김영균	하재민 정연희
7/21	임종남	오성환 신종구	김덕영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14	최창렬	하재민	황태영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7/21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손상민	옥윤필 오광운



성가번호 ♪ 입당 : 54 ♪ 예물준비 : 212, 220 ♪ 영성체 : 163, 183 ♪ 파견 : 15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10. 기술의 전문화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식의 세분화는 구체적인 적용에는 도움이 되지만, 흔히 전체에 대한 감각,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감각, 넓은 지평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오늘날 세계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 특히 환경과 가난한 이들에 관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일한 관점이나 이해관계로만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과학은 철학과 사회 윤리를 포함한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참고할 만한 참다운 윤리적 지평도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삶은 점차 기술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종속됩니다. 기술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핵심으로 여겨 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구체적 상황에는 환경 훼손, 불안, 삶의 의미와 공동생활의 의미 상실과 같은 잘못을 보여 주는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1. 생태 문화는 환경 훼손, 천연자원의 고갈, 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련의 신속한 부분적 해답들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공세에 대항하는 다른 시각, 사고 방식, 정책, 교육 계획, 생활양식,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지어 최선의 환경 보호 운동도 동일한 세계화의 논리에 빠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만을 찾는 것은, 실제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세계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112.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기술을 제한하고 그 방향을 바꾸어 기술이 다른 형태의 발전, 곧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실제로 가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군소 생산자들이 오염을 줄이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 지상주의를 지양하는 삶과 여유와 공동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아, 그들이 더 존엄하게 덜 고통받으며 살아가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이를 바라보려는 의지가 모든 대상을 객관화하려는 힘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일종의 구원이 됩니다. 새로운 종합을 요청하는 참된 인류애는 마치 달힌 문 아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안개처럼 알게 모르게 기술 문명 한가운데 자리 잡는 듯합니다. 참된 인류애의 굳건한 저항으로 싹트는 그 기대는 모든 어려움에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